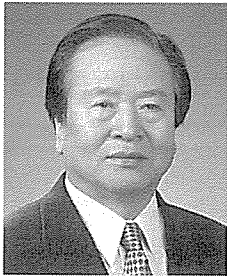


“과학기술력 없이는 경제도약 못한다”



蔡永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우리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방이나 도입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탈피하고 창의적인 기술혁신에 의존하는 경제로의 시급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우리 고유의 창의적 과학기술력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관과 민 그리고 산·학·연이 합심해서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 첫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우리 경제규모와 과학기술력간의 불균형 현상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 규모면에서 세계 11위를 마크하고 있는데 반해 이의 원동력이 되고 이를 앞에서 견인해야 할 과학기술력은 25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한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의 도약은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혁신으로의 패러다임 변환에 필요로 하는 문지방넘기 에너지의 공급문제이다. 모방기술에 의존하는 후진국 기업의 판매이윤은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에 의존하는 선진국 기업에 비해 구조적으로 왜소하게 마련이며, 이는 문지방넘기 에너지의 자급문제를 어렵게 한다. 이 문지방넘기 에너지의 자급여부는 선진경제 구현의 관건으로써 이는 우리 산업이 단순히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의 전환하는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뿐만아니라 우리 경제가 좌초하느냐, 도약하느냐의 갈림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몇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활의 문제

이다. 이를 위해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80년대에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자 기술혁신을 주축으로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회전반의 인식 전환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경주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한 “Made in America”라는 연구의 추진이라든가 정부내 “Council on Competitiveness”의 발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일들의 좋은 예다.

일본의 경우도 80년대 중반 엔화의 절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자 이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었던 흔적들을 볼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 창 의적 연구와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대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 일본을 풍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오늘 미국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그리고 80년대 후반 프라자회담 이후 100% 이상의 엔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일본경제는 계속 증가하는 무역흑자로 인해 오히려 고민을 해야 할 만큼 저력을 지니게 되는데 바탕이 되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의 우리 과학기술인의 모임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과학기술력을 통해 개선하고 개혁해 나가는데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정치, 경제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과학기술인 스스로도 우리가 처해있는 오늘의 난제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앞에 부과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에 있어 개인과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앞세워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①